

ITO코팅유리 "전도양양"

LCD 신규생산라인 가동 따라 ... 95년 수요 55만개

95년 ITO코팅유리의 수요가 큰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관 및 오리온전기 등의 STN신규라인 가동이 예상되고 있어 이에 따른 ITO코팅유리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따라 95년 국내 TN, STN-LCD용 ITO코팅유리 시장규모는 94년의 월 35만7500개보다 35% 증가한 월 55만여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ITO코팅유리 수요현황		
구 분	1994	1995(전망)
T N 용	193,000	300,000
S T N 용	164,500	250,000
합 계	357,500	550,000

이 가운데 TN-LCD용이 월 30만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STN-LCD용이 월 25만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관·오리온전기·LG전자 등 LCD생산기업들은 최근 첨단 디스플레이로 각광받고 있는 LCD산업에 큰 기대를 걸고 대규모 투자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ITO코팅유리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삼성코닝이 TN용과 STN용 ITO코팅유리를 독점생산, 국내 LCD 생산기업들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코닝은 월 90만개의 ITO코팅유리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TN급이 월 65만개, STN급은 월 25만개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코닝은 89년부터 ITO코팅유리의 생산을 시작, 생산량의 60% 이상을 일본, 대만, 싱가포르, 중국 등지에 수출하고 있으며 나머지 40% 가량을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코닝은 향후 LCD수요증가에 따른 ITO코팅유리의 수요증가에 대비 95년 하반기에 STN용 ITO코팅유리 1개라인을 증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신규라인 증설이 완료되면 삼성코닝의 STN용 ITO코팅유리 생산능력은 월 50만개에 이르게 되어 국산 공급확대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ITO코팅유리는 0.7mm, 0.5mm가 수요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격은 국산이 수입품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수입품에 비해 국산이 저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LCD생산기업간의 시장선점을 위한 지나친 경쟁 때문이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국산 ITO코팅유리의 가격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에따른 LCD생산기업간의 출혈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 관련기업간의 적절한 조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STN용 ITO코팅유리의 세계시장은 일본기업들이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본기업들이 LCD생산의 선두주자로 LCD의 핵심소재인 ITO코팅유리를 포함한 관련소재 분야의 대규모 투자를 아끼지 않은 결과로 풀이된다.

현재의 추세로는 당분간은 세계시장에서 일본기업의 독주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국산 ITO코팅유리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지원과 생산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화학저널 1995/4/3>